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1, 2011. 2, pp. 267-289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SADP and ATDP-O)의 타당도 검증*

신 은 경
(단국대학교)
이 한 나
(연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국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의료인, 교사,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한 비장애인 500명을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는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가지 차원의 15개 문항으로 정리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재구성한 척도의 적합성은 수용할만한 수준(good/reasonable fi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이 넘어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으며, DFS(Disability Factor Scale)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표적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검증이 필요하며, 척도의 활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적,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타당도 검증

* 본 연구는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책임연구원 故 이익섭 교수)" data를 활용하였습니다.

1. 서 론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논할 때 주로 다루어지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의 이주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와 같은 성적소수자, 에이즈 감염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수자로 여겨져 왔다. 여러 유형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상학, 2004; 박소현, 2008)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다른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사점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유사점은 소수자 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장애가 불수의적, 불가항력적이고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척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차별성을 지닌다. 즉 장애인은 '불행하거나 불쌍한 사람', '취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겨져(김상학, 2004; Wolfensberger, 1972; Mackelprang and Salsgiver, 1999) 다른 소수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의 대상이 되면서도(윤인진 · 송영호, 2007; 박수미 · 정기선, 2006; 김상학, 2004; Shapiro, 1993; Mackelprang and Salsgiver, 1999), 혐오와 권위적 동정이라는 극단의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감정기 · 임은애, 2004).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다룰 때는 이런 다면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측정도구를 개발, 활용하는 것은 장애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척도를 새로이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검증하는 연구(한영숙, 2004; 감정기 · 임은애, 2004; 김정남, 2003),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이지수, 2005; 송수지 · 김정민, 2008; 정옥희 · 이희경, 2004; 정현경 · 김명희, 2004; 차현화 · 김 현, 2008; 최국환, 2000, 2003), 특정한 처치나 개입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검증한 연구(양명희 · 임은미, 2004; 최원희, 2008; 최이정, 2009; 김정배, 2002)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척도는 Siller, Chipman, Ferguson and Vann(1967a)이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로, 이 밖에 Yuker, Block and Campbell(1960)이 개발한 ATDP(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s Scale)나 Antonak(1981, 1982)이 개발한 SADP(Scal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도 널리 활용되어 왔다[1]. 동 척도들은 전 세계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Antonak과 Livneh(2000)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척도를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는 것보다 효율적임을 권고하여 척도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1)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CAMI(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ness)(서정자, 2002),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CLAS-MR(The Community Living Attitudes Scale Mental Retardation)(최성규 · 오원석 · 송혜경 · 주미영, 2008)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DFS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편인 ATDP 척도와 SADP 척도를 Antonak(1982)이 혼합하여 정리한 'SADP and ATDP-O(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 척도에 주목하여, 이의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SADP and ATDP-O' 척도는 SADP 척도의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척도로, 하나의 완결된 척도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척도는 SADP와 ATDP-O 척도의 문항 중 변별력이 검증된 문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척도의 하위차원을 정리하여 새로운 구성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각 척도의 강점을 갖춘 척도로 볼 수 있다. 또한 권위적이면서 동정적인 양가적 차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며, 인권관점에 기반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권리기반관점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를 사회복지현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척도 검증방법은 기술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척도로 국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DFS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도를 확보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직종을 선별하여 이 직종에 종사하는 표적집단과 그렇지 않은 일반집단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태도의 개념과 측정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도의 개념부터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태도는 학자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특정 행동 성향을 갖게 하는, 정서를 수반하는 견해'(Triandis, 1971; Antonak and Livneh, 1988: 7 재인용),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성향이나 감정(Peat, 1997; Tervo, Azuma, Palmer and Redinius, 2002: 1537 재인용)',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 태도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Allport, 1935: 810; 한덕웅 · 성한기 · 강혜자 · 이경성 · 최훈석 · 박군석, 2008: 165 재인용)'등으로 정의되며, 인지, 감정, 행동의도라는 세 가지 구성요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Shannon, Schoen and Tansey, 2009: 12).

태도는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한덕웅 외, 2008: 169). 태도를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는 행동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태도의 측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축적해 왔다.

Antonak과 Livneh(2000: 212)는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방법을 크게 간접적 측정방법과 직접적 측정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적 측정방법은 응답자에게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태도대상에 대한 정서와 인식, 행동의지를 직접 답하게 하는 형식으로 측정하게 되고, 주로 질문지법을 사용한다. 질문의 형식은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며, 자료수집과 분석이 용이한 폐쇄형 질문은 리커트 척도, 의미분화척도, 사회적 거리감 척도[2], 총화평정척도[3] 등의 측정방법으로 태도를 측정한다. 간접적 측정방법은 관찰이 주된 측정의 방법이며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비관여행동관찰법(nonobtrusive behavioral observation)으로, 관찰대상자가 본인의 관찰 여부를 모르고 실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대상자가 관찰 여부는 인지하고 있으나, 관찰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투사법(projective technique)[4]으로, 연구의 목적이 제한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관찰대상자의 의식적인 반응 왜곡이 최소화된다는 강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관찰대상자가 관찰 여부는 알고 있으나 관찰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위장관찰법(disguised technique)이다. 네 번째 방법은 생리적 방법(physiological methods)으로, 특정 상황에서 관찰대상자의 심박수나 혈압, 동공의 확대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태도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다양한 태도 측정방법 중 양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질문지법을 이용한 직접적 측정방법이며,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리커트식 척도를 이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용이성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국내 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장애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유형화될 수 있는데, Findler, Vilchinsky와 Werner(2007: 167)는 측정도구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내용과 맥락', '측정방법', '척도의 차원'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 '내용과 맥락'은 태도대상이 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지, 질문의 내용이 보편적인지 또는 장애인의 권리나 편의시설 등 특정한 내용에 한정되는지, 그리고 측정대상이 보편적인지 또는 학교장이나 재활전문가 등 특정한 대상에 한정되는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측정의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Antonak과 Livneh(2000)가 제시한 기준과 일치하며 직접측정과 간접측정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 기준인 '척도의 차원'은 구성에 따라 단일차원척도와 다차원 척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인, 보편적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상황에서의 태도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

2) 불법체류 외국인, 에이즈감염인, 성적소수자, 이슬람교도 등의 태도대상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 '나의 이웃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 '나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과 같은 응답범주를 선택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3) 여러 문항의 응답값을 총합하여 계산하는 척도로, 문항에 동의하는 경우 1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값을 부여하여 각 문항의 응답값을 합산하는 척도를 예로 들 수 있다.

4) Rorschach검사,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등이 투사법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중 활용빈도가 높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ATDP는 단일차원 척도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함께 다루고자 한다.

(1) ATDP(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

ATDP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알려져 있다(Antonak and Livneh, 1988: 134). ATDP는 Yuk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Form-O(ATDP-O), A(ATDP-A), B(ATDP-B)의 세 가지 형태로 개발되었는데,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Form-O가 먼저 개발되었으며(Yuker et al., 1960), 이후 각각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Form-A와 B가 개발되었다(Yuker, Block and Young, 1966; Antonak and Livneh, 1988: 134 재인용). 전 세계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ATDP는 최근까지도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Matziou, Galanis, Tsoumakas, Gymnopoulou, Perdikaris and Brokalaki, 2009; Perry, Ivy, Conner and Shelar, 2008; Shannon et al., 2009; Richard, Compain, Mouillie, Adès, Garnier, Dubas and Saint-André, 2005; Tervo et al., 2002), 국내에서도 이청자(1994), 김민수(2001) 등이 번안하여 활용해 왔다(감정기·임은애, 2004: 363 재인용). 그러나 Antonak(1982: 22)은 ATDP가 60년대 개발된 척도임을 지적하며,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차원적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2) DFS (Disability Factor Scale)

DFS는 Siller와 그의 동료들이 ATDP와 같은 기존 척도들이 단일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장애'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개발한 도구이다(Siller, Chipman, Ferguson and Vann, 1967a; Antonak and Livneh, 1988: 144 재인용). DFS는 절단장애(DFS-A), 시각장애(DFS-B), 기형(DFS-C)(Siller, Ferguson, Vann and Holland, 1967b), 청각장애(DFS-D)(Ferguson, 1970), 비만(DFS-O)(Vann, 1970), 암(DFS-K)(Siller and Braden, 1976) 등의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발되었고, 이와 함께 모든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인 DFS-G가 개발되었다(Siller, 1969, 1970). DFS-G 원척도는 7개 하위차원[5]의 6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DFS는 해외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Johnson and Darrow, 2003; Weisel and Zaidman, 2003; Weisel and Florian, 1990), 특히 국내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는 DFS-G를 활용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양명희·임은미, 2004; 최원희, 2008; 송수지·김정민, 2008; 정옥희·이희경, 2004; 차현화·김 현, 2008; 최이정, 2009). 국내에서 활용된 DFS-G 척도는 대부분 41~43문항으로 축약된 형태를 사용하였다.

(3) SADP (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SADP는 Antonak(1982)이 ATDP-O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한 척도로, 특정 유형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SADP는 '낙관주의-인권(Optimism-Human

5) 7개의 하위차원은 다음과 같다: ① 무조건적 거부, ② 왜곡된 동일시, ③ 추론된 정서장애, ④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 제한, ⑤ 권위주의적 태도, ⑥ 친교의 거부, ⑦ 접촉시 긴장

Rights)', '행동오해(Behavioral Misconception)', '염세주의-절망(Pessimism-Hopelessness)'의 세가지 하위차원,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ADP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척도로, 해외의 수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Tervo et al., 2002; Tervo, Palmer, and Redinius, 2004; Nagata, 2008; Dhingra and Bhatnagar, 2006; Packer, Iwasiw, Theben, Sheveleva and Metrofanova, 2000; Bakheit and Shanmugalingam, 1997; Beckwith and Matthews, 1995).

국내에서도 이지수(2005), 최국환(2000, 2003, 2006), 정현경·김명희 (2004) 등이 SADP 척도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최국환(2003)은 Choi와 Lam(2001), Chan, Hedl, Parker, Lam, Chan과 Yu(1988)가 SADP가 일반 태도척도로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지칭하지 않아 응답자로 하여금 다양한 반응양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구분하여 지칭하도록 지시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SADP and ATDP-O(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SADP and ATDP-O 척도는 SADP의 개발과정에서 ATDP 척도와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에서 추출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onak(1982)은 SADP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TDP-O와 SADP에 대해 함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값이 .345가 넘는 문항을 SADP에서 17개, ATDP에서 15개, 총 32 개를 추출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차원은 5개로 나뉘는데, '염세주의-절망(Pessimism-Hopelessness)',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Derogatory Personality Stereotype)', '동정적 사회적 고정관념(Benevolent Social Stereotype)', '행동오해(Behavioral Misconception)', '낙관주의-인권(Optimism-Human Rights)'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32개의 문항 중 의미가 중복되는 2개의 문항[6]을 제외하고 30개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5) 기타

이 외에도 국내와 해외에서 개발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ndler와 그의 동료들(2007)에 의해 개발된 MAS(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들 수 있다. 동 연구자들은 태도가 인지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통적 이론에 근거하여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34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로 감정기·임은애(2004)의 '양가적 장애인 차별 척도'가 있다. 본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적대적 성격의 부정적 차별 뿐 아니라 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기제의 작용으로 인해 긍정적 외양을 띨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크게 적대적 차별(hostile disablism)과 호의적 차별(benevolent disablism)로 구분하여 이러한 태도를 측

6)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기꺼이 일하고자 한다'

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동 척도에서의 장애인차별의 개념은 '가치비하', '구별', '지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 영역은 적대적 태도인 '멸시', '배제적 분리', '권위적 지배'와 호의적 태도인 '동정', '보호적 분리', '온정적 지배'로 함께 구성된다. 양가적 장애인차별척도는 6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는 3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영숙(2004)은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표적집단면접과 기존 척도(DFS와 ATDP) 연구를 통해 127문항을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한 후 81개의 문항, 9개의 요인구조로 구성된 '장애인 편견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의 9개의 요인은 '부정적 성격 경향', '능력 부족 및 자립심 결여', '배척/기피감정', '숙명적 귀인', '특이능력/감정소유', '수동적 성향', '의존적 성향', '지절능력 결여', '폐쇄적 대인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장애인에 대한 태도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대 이상의 비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비장애인 중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일반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적집단을 선정, 인식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의료인, 교사,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5개 직종을 선정, 각 집단에서 50명 씩 총 250명을 할당하였다.

표본추출은 표적집단은 임의 표집 방법을 통해, 표적집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집단은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할당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를 통해 개발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반집단은 전화조사를, 표적집단 조사는 전화와 이메일, 우편발송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09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였다.

2) 측정도구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 척도를 활용하였다. SADP and ATDP-O 척도는 다섯 개의 하위차원('염세주의-절망',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 '동정적 사회적 고정관념', '행동오해', '낙관주의-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차원에 대한 설명과 문항의 갯수는 다음과 같다. '염세주의-절망'은 장애인의 인간적인 성숙과 도덕심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의미하며, SADP에서 추출된 5개의 문항과 ATDP에서 추출된 한 문항,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은 장애인이 불평이 많고 과민하며 쉽사리 우울해질 것이라는,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ATDP-O에서 추출된 10 문항으로 구성된다. '동정적 사회적 고정관념'은 ATDP-O에서 추출된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분리적, 동정적 태도

를 측정하는 하위차원이다. '행동 오해'는 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SADP에서 추출된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관주의-인권'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SADP에서 추출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 척도를 국내의 비장애인에게 적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소수의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홍세희, 2006),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한다(이순묵, 1994).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은 추정된 값(parameter estimates)에 대한 평가, 즉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여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것이다(홍세희, 2006).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된 척도는 Cronbach's α값을 통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여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평가하였고, DFS와 본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7] 그리고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로 측정된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기술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는 SPSS Win 15.0을 사용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7.0을 이용하였다.

4.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장애인과 접촉이 잦은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적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유효응답자 239명 중 남자가 93명(38.9%), 여자가 146명(61.1%)으로 여자가 1.5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은 유효응답자 239명 중 20대가 64명(26.8%), 30대가 128명(53.6%)

7) 수렴타당도는 개념구성타당도의 한 유형으로, 측정도구가 이론적으로 관계 있는 변인들과 예견되는 방향(정적 또는 부적)의 관계를 보일 때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한다(김용석, 이은영, 고경은, 민은희, 2007: 91). 수렴타당도는 해당척도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거나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와의 상관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척도'라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며, SADP와 관련이 높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DFS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으로 2-30대의 비율이 80%를 넘게 차지하여 전반적인 연령층이 낮음을 알 수 있다(평균연령=약 34세). 셋째, 학력은 유효응답자 238명 중 대학재학/졸업이 139명(58.1%), 대학원재학/졸업이 72명(30.1%)로,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월평균 가구소득은 유효응답자 237명 중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98명(41.4%), 200만원 미만이 57명(24.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56명(23.6%)순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5명(6.3%)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종은 공무원이 57명(23.8%), 교사 45명(18.8%), 의료인 49명(20.5%), 언론인 27명(11.2%).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61명(25.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79명(33.8%),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3명(31.2%),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1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의 평균은 8.5년으로 나타났다.

표적집단을 제외한 일반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남자가 105명(38.9%), 여자가 165명(61.1%)으로 여자가 1.5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은 20대가 51명(18.9%), 30대가 51명(18.9%), 40대가 58명(21.5%), 50대가 50명(18.5%), 60대가 44명(16.3%), 70대 이상이 16명(5.9%)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평균연령=약 45세). 셋째, 학력은 유효응답자 270명 중 대학재학/졸업이 101명(37.4%), 고졸이 96명(35.6%)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이 115명(42.6%), 200만원 미만이 77명(28.5%), 4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이 52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유효응답자는 270명으로 동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기술 통계 분석

각 하위차원별 분석에서는 4점 척도에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이 2.40(표준편차=.35), '동정적 사회적 고정관념'이 2.18(.36), '행동오해'가 2.01(.40), 염세주의-절망이 1.98(.42), 낙관주의-인권이 1.91(.39)순으로 평균값을 보여, 장애인의 성격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하위차원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하위차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염세주의-절망	1.00	3.17	1.98	.42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	1.00	3.40	2.40	.35
동정적 사회적 고정관념	1.00	3.50	2.18	.36
행동오해	1.00	3.00	2.01	.40
낙관주의-인권	1.00	4.00	1.91	.39
합계	1.23	3.10	2.14	.29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표 2〉 장애인에 대한 태도 문항별 기술통계

하위차원	문항	평균(표준편차)
염세주의-절망	1)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아이 같다.	2.31(.70)
	2)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1.91(.58)
	3) 장애인에게는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하면 안 된다.	1.82(.63)
	4) 장애인이 아이를 가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2.07(.72)
	5)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	1.88(.55)
	6)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1.91(.59)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	7)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2.37(.62)
	8)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2.48(.65)
	9)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만큼 행복하다.*[8]	2.44(.62)
	10)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2.38(.62)
	11) 장애인은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경향이 있다.	2.64(.65)
	12)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	2.23(.67)
	13)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1.99(.60)
	14) 대부분의 장애인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2.44(.61)
	15) 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는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2.83(.54)
	16) 장애인은 자주 퉁명스럽게 군다.	2.18(.55)
동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	17) 장애아의 부모는 비장애아의 부모들보다 덜 엄격해야 한다.	2.06(.57)
	18)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어울리기 쉽다.	2.09(.43)
	19)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2.11(.65)
	20)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2.45(.62)
행동오해	21)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	2.27(.61)
	22) 일반학급의 장애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1.87(.58)
	23) 장애를 가진 사람은 체포되면 원하지 않더라도 시설에 수감돼야 한다.	1.97(.67)
	24) 고용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은 통과돼야 한다.*	1.77(.60)
	25) 장애인들은 적절한 환경과 기회만 갖춰지면 그들의 범죄성향을 계발하고 표현한다.	2.19(.69)
낙관주의-인권	26)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2.04(.65)
	27)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2.03(.53)
	28)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81(.56)
	29)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80(.56)
	30) 지역사회에 공동생활가정을 마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1.87(.57)

전체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손상된 성격고정관념의 “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는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평균 2.83)였고,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행동오해의 “고용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은 통과해야 한다”(역채점 문항, 평균 1.77)였다. 이 결과는 장애인의 성격에 대한 개인적 편견이 팽배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제도적 장치는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염세주의-절망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은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평균 2.31)”이었고,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은 “장애인에게는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하면 안된다(1.82)” 라는 문항이었다. 손상된 성격고정관념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고,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은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평균 1.99)였다. 동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평균 2.45)“라는 문항의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장애아의 부모는 비장애아의 부모들 보다 덜 엄격해야 한다(평균 2.06)“라는 문항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행동오해의 측면에서는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평균 2.27)“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은 전체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낙관주의-인권에서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역채점문항, 평균 2.04)“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역채점 문항, 평균 1.80)“ 문항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3) 요인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① 공통성 지수(Communality)를 통한 문항분석

본 연구에서는 SADP and ATDP-O 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면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제시한 공통성 지수를 중심으로 문항분석의 사전과정을 거쳤다. 공통성 지수는 어느 변수의 공통분의 추정치를 일컫는다(이순묵, 2000). 따라서 공통성지수가 0.3 이하인 것은 그 변수가 추정하는 공통분의 값이 너무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1차적으로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동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Benevolent Social Stereotype)에 해당하는 4개 문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염세주의-절망(Pessimism-Hopelessness) 에서는 2개 문항,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Derogatory Personality Stereotype) 에서는 4개 문항, 행동 오해(Behavioral Misconceptions) 에서는 3개 문항, 낙관주의-인권(Optimism-Human Rights) 에서는 2개 문항을 삭제하게 되었다.

---

8) *는 역채점 문항으로써, 이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한 경우 ‘매우 그렇다’로, ‘그렇지 않다’로 답한 경우 ‘그렇다’로, ‘그렇다’로 답한 경우 ‘그렇지 않다’로, ‘매우 그렇다’로 답한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로 간주하며, 위의 표는 이와 같은 절차로 변환한 결과이다.

〈표 3〉 장애인에 대한 태도 문항별 기술통계

하위 차원	문항	공통성 지수
염세주의-절망	1)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아이 같다.	.333
	2)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474
	3) 장애인에게는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하면 안 된다.	.167
	4) 장애인이 아이를 가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236
	5)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	.436
	6)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473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	7)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464
	8)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533
	9)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만큼 행복하다.*	.124
	10)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369
	11) 장애인은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경향이 있다.	.288
	12)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	.470
	13)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427
	14) 대부분의 장애인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
	15) 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는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180
	16) 장애인은 자주 퉁명스럽게 군다.	.584
동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	17) 장애아의 부모는 비장애아의 부모들보다 덜 엄격해야 한다.	.286
	18)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어울리기 쉽다.	.035
	19)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245
	20)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223
행동 오해	21)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	.389
	22) 일반학급의 장애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95
	23) 장애를 가진 사람은 체포되면 원하지 않더라도 시설에 수감돼야 한다.	.230
	24) 고용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은 통과돼야 한다.*	.071
	25) 장애인들은 적절한 환경과 기회만 갖춰지면 그들의 범죄성향을 계발하고 표현한다.	.270
낙관주의-인권	26)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115
	27)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328
	28)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697
	29)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721
	30) 지역사회에 공동생활가정을 마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156

②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선정 과정을 거친 15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차원(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적재값의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염세주의-절망, 손상된 성격, 행동오해의 항목들 10개 문항이 하나의 하위차원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문항의 의미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또한 3개 문항이 낙관주의-인권이라는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고, 손상된 성격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이 같은 하위차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 척도는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15개 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하위차원은 다른 명명(naming)이 필요하였는데, 문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원 척도 하위차원의 이름을 최대한 유지하는 의미에서,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표 4〉 장애인에 대한 태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9]	요인 2[10]	요인 3[11]
염세주의-절망 ②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669		
염세주의-절망 ③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	.661		
손상된 성격 ④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	.638		
염세주의-절망 ④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630		
손상된 성격 ⑤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618		
손상된 성격 ③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616		
행동오해 ①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	.598		
행동오해 ② 일반학급의 장애 아동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589		
손상된 성격 ⑥ 장애인은 자주 퉁명스럽게 군다.	.586		
염세주의-절망 ①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아이 같다.	.574		
낙관주의-인권 ②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843	
낙관주의-인권 ③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843	
낙관주의-인권 ①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561	
손상된 성격 ②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747
손상된 성격 ①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669
설명분산	31.84	7.81	4.94

9) 염세주의 -고정관념

(2) 확인적 요인분석

총 3개 하위차원과 15문항으로 구성된 SADP and ATDP-O 척도에 대한 모델의 적합성을 판명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델 적합성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x^2값, p값, 자유도를 제시하는데, x^2값은 전반적인 모델 적합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값이 작을수록 모델 적합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표본크기가 클 경우 작은 x^2값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런 경우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다른 지수들(NNFI, CFI)을 사용하기도 한다(김용석, 1997: 55; 양옥경, 2001 재인용).

확인적 요인분석에 적절한 부합도 지수로는 터커 루이스 지수[12](Tucker-Lewis index), 비교부합지수(CFI), 근사평균오차 제곱근(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or)이 있다(홍세희, 2007). CFI와 TLI는 0.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RMSEA은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다른 모형의 부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구조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 0.08이하이면 괜찮은 부합도, 0.10이상이면 나쁜 부합도를 나타낸다(Browne and Cudeck, 1993).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된 모델 적합성

	x^2	*df*	*p*	TLI	CFI	RMSEA
본 연구에서 검증된 SADP and ATDP-O	265.970	87	.000	.912	.927	.064

본 조사에서 TLI값은 .912, CFI 값은 .927이어서 좋은 부합도(good fit)를 나타내고 있고, RMSEA 값은 .064로 괜찮은 부합도(reasonable fit)를 보이고 있다.

4) 척도의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재구성되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받은 15개 문항의 SADP and ATDP-O 척도의 하위차원별 신뢰도와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익섭・이윤로, 2006). 따라서 전체 15개 문항과 각 차원별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10) 낙관주의-인권
11) 손상된 성격
12) 터커 루이스 지수(Tucker-Lewis index)는 비표준 부하지수(NNFI : Non-normed fit index) 인데, AMOS에서는 터커 루이스 지수로 부른다(홍세희, 2007).

〈표 6〉 척도의 신뢰도

하위차원	문항 수	Cronbach's α
염세주의-고정관념	10	.859
낙관주의-인권	3	.787
손상된 성격	2	.672
전체	15	.864

5) 수렴타당도

본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3개 하위차원 15개 문항의 SADP and ATDP-O 와 DFS의 7개 하위차원 41개 문항의 하위차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DFS와 타당도가 검증된 본 척도간의 상관관계

하위차원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접촉시 긴장	.580**	.381**	.263**
친교거부	.551**	.431**	.249**
추론된 정서장애	.657**	.346**	.371**
권위주의적 태도	-.069	-.232**	-.096*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 제한	.690**	.377**	.291**
무조건적 거부	.641**	.406**	.311**
왜곡된 동일시	.249**	.036	.243**

** p 〈 .01, * p 〈 .05

타당도가 검증된 본 척도의 하위차원인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은 DFS 척도의 하위차원인 접촉시 긴장, 친교거부, 추론된 정서적 장애, 권위주의적 태도,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 제한, 무조건적 거부, 왜곡된 동일시와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단, DFS의 왜곡된 동일시와 본 척도의 낙관주의-인권, 그리고 DFS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본 척도의 염세주의-고정관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DFS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만일 내가 장애인이라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와 같이 장애의 손상효과(impairment effect)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다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다고 응답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의 하위차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염세주의-고정관념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DFS의 왜곡된 동일시는 장애에 관해 두려움을 갖는 태도로 "나는 가끔 팔이나 다리가 다쳐 장애인이 될까 봐 걱정을 한다"와 같은 문항이 있는 하위차원인데, 이는 장애인

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주어야 한다는 낙관주의-인권 요인과는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또한 의미상으로는 납득이 가능하더라도 추후 통계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6)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차이 검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SADP and ATDP-O의 평균점수가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일반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적집단(공무원, 의료인, 교사,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과 일반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해 보았다.

〈표 8〉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차이

척도 내용	직종분류		*t*	*Sig*
	표적집단(n=239)	일반집단(n=268)		
염세주의-고정관념	1.86	2.30	14.252***	.000
낙관주의-인권	1.72	2.02	7.243***	.000
손상된 성격	2.30	2.50	4.791***	.000
척도 전체	1.89	2.27	14.064***	.000

*** $p < .001$

유효응답자 총 507명 중 표적집단은 239명이었고, 일반집단은 268명이었다. 3개 하위차원 각각, 즉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15개 문항의 전체 척도를 측정한 부분에서도 표적집단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차이를 보였다. 즉 장애인에 대한 표적집단의 태도가 일반집단의 태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하위차원은 장애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었고, 평균점수가 낮은 하위차원은 낙관주의-인권에 대한 태도인데, 낮은 평균점수(표적집단 1.72, 일반집단 2.02)는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이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공무원, 의료인, 교사,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표적집단과 표적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집단으로 구분한 비장애인 500명이었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결과, '염세주의-절망', '손상된 성격 고정관념', '동정적 사회적 고정관념', '행동오해', '낙관주의-인권'의 다섯 개 차원, 30문항으로 구성된 원 척도는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개 차원의 15개 문항으로 정리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재구성한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각 부합도 지수가 좋거나(good) 괜찮은(reasonable) 정도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된 척도는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값이 .8이 넘고, 각 하위차원의 Cronbach’s α 값 역시 .6이 넘는 안정적인 신뢰도를 나타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DFS와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차원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추후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구성한 척도를 하위차원 별로 기술분석한 결과,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손상된 성격’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낙관주의-인권’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나,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궁극적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한 t-검증 결과, 각 하위차원에서 모두 표적집단이 일반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극복방안을 실천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어 재구성된 척도를 보면, 장애인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최근 장애와 장애인문제에 대한 이념 동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당위성을 지닌 관점의 확대만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진정한 통합과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장애인의 성격에 대한 편견은 명백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Wolfensberger(1992)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체계적으로 가치절하하고 있는 사회’를 문제시하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절하된 장애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손상된 성격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는 실천방안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적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오원석 외, 2009; 정옥희, 이희경, 2004; 최국환, 2000; Beckwith and Matthews, 1995; Carney and Cobia, 1994; Gething, 1992, 1994; Martin, Scalia, Gay, and Wolfe, 1982)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은 막연하고 대상화된 의식교육보다는 구조화된 접촉을 강화해야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SADP and ATDP-O가 특정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는 유형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시적으로 기능과 구조가 손상된 장애인과 감각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및 내부기관장애인에 따라 비장애인의 편견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장애 유형별로 검증해 본다면, 척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집단과 표적집단의 표본추출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상의 한계

를 보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정기 · 임은애. 2004. “양가적 장애인 차별척도 개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357-382.

김민수. 2001.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동료집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사회연구』. 1: 169-206.

김용석. 1997. “사회사업조사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델의 사용”.『연세사회복지연구』. 제4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용석 · 이은영 · 고경은 · 민은희. 2007.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한국사회복지학』. 59(4): 83-109.

김정남. 2003.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개발”.『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95-617.

김정배. 2002.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장애인이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한국청소년연구』. 13(1): 133-173.

박소현. 2008. “사회복지전공생 및 사회복지사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박수미 ·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여성연구』. 70: 5-26.

서정자. 2002.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척도 개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송수지 ·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83-99.

양명희 · 임은미. 2004.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 과목 수강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03-223.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연구”.『한국가족복지학』. 8: 119-146.

오원석 · 최성규 · 송혜경 · 송호준. 2009.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분석”.『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52(1): 125-148.

윤인진 · 송영호. 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57-868

이순묵.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0): 1-27.

이순묵. 2000.『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이익섭 · 이윤로. 2006.『사회복지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이지수. 2005. “우리나라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요인 연구”.『사회복지연구』. 26: 151-176.

이청자. 1994. “장애인에 대한 태도조사”『재활재단논문집』 3: 19-50.

정옥희 · 이희경. 2004.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과 비전공 대학(원)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임상사회사업연구』 1(2): 187-206.

정현경 · 김명희. 2004. “의사와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재활간호학회지』 7(2): 213-219.

차현화 · 김 현. 2008. “예비교사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7(4): 285-297.

최국환. 2000. “한국재활기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직업재활연구』 10(2): 81-91.

. 2003. “한국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연구”. 『특수교육연구』 10(2): 72-83.

. 2006. 대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태도 연구. 『직업재활연구』 16(1): 265-280.

최성규 · 오원석 · 송혜경 · 주미영. 2008.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정신지체연구』 10(1): 185-205.

최원희. 2008. “교양과목 장애복지론 수업을 통한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K대학교 장애복지론 수강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활복지』 12(1): 160-184.

최이정. 2009. “장애인관련 TV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언론정보연구』 46(2): 67-99.

한덕웅 · 성한기 · 강혜자 · 이경성 · 최훈석 · 박군석. 2008.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한영숙. 2004. “장애인 편견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학생생활연구』 11: 55-72.

홍세희. 2006. 『사회복지 전문가를 위한 연구 방법론Ⅲ』.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홍세희. 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Ⅰ.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Allport, G. W. 1935.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urchinson, C.,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Antonak, R. F. 1981. “Prediction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 multivariate analysi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04: 119-123.

_____. 198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3(2): 22-29.

Antonak, R. F., and H. Livneh. 1988.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Psychometrics and Scales.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Illinois, U.S.A.

_____. 2000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es”. *Diability and Rehabilitation*. 22(5): 211-224.

Bakheit, A. and V. Shanmugalingam. 1997. “A study of the attitudes of a rural Indian community toward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Clinical Rehabilitation*. 11(4): 329-334.

Beckwith, J. B. and J. M. Matthews. 1995. “Measurement of attitudes of trainee professional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39(4): 255-262

Browne, M. W.,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wssing Models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Chan, F., J. J. Hedl. Jr., H. J. Parker, C. S. Lam, T. N. Chan and B. Yu. 1988. “Differential attitudes of Chines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4(4): 267-273.

Choi, G., and C. S. Lam. 2001. “Korean students' differential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 acculturation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4: 79-81.

Dhingra, Y., V. Bhatnagar. 2006. “Attitudes of speech-language pathology student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y” *Asia Pacific Disability Rehabilitation Journal*. 17(1): 94-100.

Ferguson, L. T. 1970. “Components of attitudes toward the deaf”. *Proceeding of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 693-694.

Findler, L., N. Vilchinsky and S. Werner. 2007. "The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truct and Valid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0(3): 166-176.

Johnson, C. M. and A. Darrow. 2003. "Attitudes of junior high school music students' from Italy and the USA toward individuals with a disability".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55: 33-43.

Mackelprang, R. W. and R. O. Salsgiver. 1999. *Disability: A diversity model approach in human service practice*. Brooks: Cole publishimg company

Matziou, V., P. Galanis, C. Tsoumakas, E. Gymnopoulou, P. Perdikaris and H. Brokalaki. 2009. "Attitudes of nurse professionals and nursing students towards children with disabilities. Do nurses really overcome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handicap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6: 456-460.

Nagata, K. K. 2008. "Disability and development: Is the rights model of disability valid in the Arab region? An evidence-based field survey in Lebanon and Jordan" *Asia Pacific Disability Rehabilitation Journal*. 19(1): 60-78.

Packer, T. L., C. Iwasiw, J. Theben, P. Sheveleva and N. Metrofanova. 2000. "Attitudes to disability of Russian occupational therapy and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3(1): 39-47.

Peat, M. 1997. "Attitude and access: advancing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y."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56: 657-659.

Perry, T. L., M. Ivy, A. Conner and D. Shelar. 2008. "Recreation student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iderations for future service delivery".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s and Tourism Education. 7(2): 4-14.

Richard, I., V. Compain, J. M. Mouillie, F. Adès, F. Garnier, F. Dubas, J. P. Saint-André., 2005. "Evaluation of the attitude towards disabled persons of 3rd and 4th year medical students using the 'attitude towards disabled persons' questionnaire. Effect of courses and rotations in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departments". *Annales de Readaptation et de Medecine Physique*. 48(9): 662-667.

Shannon, C. D., B. Schoen, and T. N. Tansey. 2009. "The Effect of Contact, Context, and Social Power on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75(4): 11-18.

Shapiro, J. P. 1993. *No pit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ging a new civil rights move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iller, J. 1969. *The general form of the Disability Factors Scales Series(DFS-G)*. Unpublished manuscrip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New York.

_____. 1970. "Generality of attitudes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Proceedings of the 7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 697-698.

Siller, J and B. Braden. 1976.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cancer, Unpublished manuscrip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New York.

Siller, J., A. Chipman, L. T. Ferguson, and D. H. Vann. 1967a. Attitudes of the non-disabled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Studies in reactions to disabilit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New York.

Siller, J., L. T. Ferguson, D. H. Vann and B. Holland, B. 1967b. Structuring of attitudes towards the physically disabled: The Disability Factor Scale- Amputation, Blindness, Cosmetic Conditions, Studies in reactions to disabilit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New York.

Tervo, R. C., S. Azuma, G. Palmer and P. Redinius. 2002.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omparative Stud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3: 1537-1542.

Tervo, R. C., G. Palmer and P. Redinius. 2004. "Health Professional student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y." *Clinical Rehabilitation*. 18: 908-915.

Triandis, H. C. 1971. *Attitudes and Attitudes chan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Vann, D. H. 1970. "Components of attitudes toward the obese including presumed responsibility for the condition".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 695-696.

Weisel, A. and A. Zaidman. 2003. "Attitudes of Secular and Religious Israeli Adolescent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3): 309-323

Weisel, A. and V. Florian. 1990. "Same- and cross-gender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Rehabilitation Psychology*. 35(4): 229-238.

Wolfensberger, W. A.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_____. 1992. *Brief introduction to social role valorization*. 2nd Edition. Syracuse, NY.

Yuker, H. E., J. R. Block and W. J. Campbell. 1960. A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Human Resources Study* No. 5. Albertson, NY: Human Resources Center.

Yuker, H. E., J. R. Block and J. H. Young. 1966.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Human Resources Study No. 7. Albertson, NY: Human Resources Center.

Validation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ADP and ATDP-O) in Korea

Shin, Eun-Kyung
(Dankook University)
Lee, Han-Na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original by translating and modifying the scale proposed by Antonak(1982). In order to test validation, this study was focused on processing survey and statistic data analysis and tried to find a way to applicate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non-disabled persons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were consist of target group (public officials, health care providers, teachers, journalists and rehabilitation facility staffs) and general group. Based on the descriptive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data,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examined. Also to find the statistic significant difference on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between target group and general group, t-test was proceed.

The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rew 15 items representing 3 factors (Pessimism-Stereotype, Optimism-Human Rights, Derogatory Personality Stereotyp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provid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is scale as good and reasonable fitness. Cronbach's alpha ranged from .67 to .85 showed internal consistencies of the sub-scales. The subsca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nvergent with DFS(Disability Factor Scale) variables. And the target group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 than general group.

It is suggested this scale more suitable for various disability types be elaborated, and get a practical implication on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Key words :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scale, validation

〔논문 접수일 : 10. 09. 30, 심사일 : 10. 10. 13, 게재 확정일 : 10. 10. 30〕

〈부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표적집단		일반집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n=509)	남자	93	38.9	105	38.9
	여자	146	61.1	165	61.1
연령 (n=509)	20대	64	26.8	51	18.9
	30대	128	53.6	51	18.9
	40대	34	14.2	58	21.5
	50대	11	4.6	50	18.5
	60대	2	0.8	44	16.3
	70대 이상	-	-	16	5.9
학력 (n=508)	무학	-	-	3	1.1
	초졸	-	-	13	2.6
	중졸	-	-	25	4.9
	고졸	5	2.1	96	35.6
	전문대재학/졸	22	9.2	22	8.2
	대학재학/졸	139	58.1	101	37.4
	대학원재학/졸	72	30.1	10	3.7
월평균 가구소득 (n=507)	200만원 미만	57	24.1	77	28.5
	2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98	41.4	115	42.6
	4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	52	21.9	52	19.3
	600만원이상 800만원 미만	9	3.8	11	4.1
	8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6	2.5	3	1.1
	1000만원 이상	15	6.3	12	4.4
직종 (n=239)	공무원	57	23.8		
	교사	45	18.8		
	의료인	49	20.5		
	언론인	27	11.2		
	장애인복지 시설종사자	61	25.5		
근무경력 (n=234명) 평균≒8.5	1년 미만	3	1.3		
	1년이상 5년미만	79	33.8		
	5년이상 10년미만	73	31.2		
	10년이상 15년미만	41	17.5		
	15년이상 20년미만	22	9.4		
	20년이상	16	6.8		